



금융위원회

# 보도참고자료



보도

2020.4.23.(목) 10:00

배포

2020.4.23.(목)

책 임 자	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장 이 석 란(02-2100-2850)	담 당 자	이 종 림 사무관 (02-2100-2851) 강 승 재 사무관 (02-2100-2853)
	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손 주 형(02-2100-2850)		황 기 정 사무관 (02-2100-2832)
	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 선 욱(02-2100-2860)		김 태 훈 사무관 (02-2100-2861)
	금융위원회 은행과장 박 민 우(02-2100-2950)		송 용 민 사무관 (02-2100-2953)
	금융위원회 보험과장 김 동 환(02-2100-2960)		김 미 정 사무관 (02-2100-2961)
	금융위원회 중소기업과장 홍 성 기(02-2100-2990)		권 민 영 사무관 (02-2100-2991)
	금융위 자본시장과장 손 영 채(02-2100-2650)		나 혜 영 사무관 (02-2100-2652)
	산업은행 기획조정부장 민 경 필(02-787-6101)		안 성 진 팀장 (02-787-6141)
	수출입은행 여신총괄부장 강 정 수(02-3779-6261)		조 정 화 팀장 (02-3779-6265)
	기업은행 여신기획부장 권 용 대(02-729-7711)		이 상 민 팀장 (02-729-7475)
	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장 문 영 표(053-430-4331)		안 정 열 수석부부장 (053-430-4332)
	은행연합회 본부장 김 평 섭(02-3705-5050)		이 인 균 부장 (02-3705-5704)
	금융투자협회 상무 이 창 화(02-2003-9013)		허 욱 부장 (02-2003-9100)
	여신금융협회 상무 이 태 운(02-2011-0710)		이 효 택 부장 (02-2011-0724)
	생명보험협회 상무 신 영 선(02-2262-6621)		김 인 호 부장 (02-2262-6645)
	손해보험협회 상무 서 영 중(02-3702-8580)		권 병 근 부장 (02-3702-8571)
저축은행중앙회 상무 최 병 주(02-397-8602)	성 용 욱 부장 (02-397-8640)		



[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 ]

- 최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정부의 시장안정화 조치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국내 금융시장도 다소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
- 그러나 미국, 유럽 등 해외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진행 중이며, 언제 사태가 종식될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.
- 여기에 국제유가 하락, 글로벌 공급망 영향까지 더해지면서
  - IMF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마이너스 3.0%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. 우리나라도 마이너스 성장(△1.2%)이 전망되고 있습니다.
- \*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(%): (세계) △3.0 (선진국) △6.1 (신흥국) △1.0
- 경제 활동의 위축과 매출 급감이 이어지면서 경제 전체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.
  - 대응 여력이 취약한 소상공인, 중소기업뿐만 아니라, 대기업마저 어려움을 겪는 등 위기감이 감돌고 있고,
  - 그동안 우리 경제의 근간으로 자리잡아온 산업기반이 무너지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.

- 지난 3월 24일에 발표한 「100조원 + a 민생·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」으로 소상공인, 중소기업의 자금애로 해소와 시장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,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.
- 우리 경제가 코로나19의 충격 속에서도 기업과 일자리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다지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.
- 이에 어제(4.22일)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고 기간산업을 살리기 위한 「기업안정화 지원방안」을 발표하였습니다.
- 하지만, 이러한 대책들은 발표뿐만 아니라, 현장에서 목적에 맞게 실행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에, 금융권 역할에 대해 공감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자 오늘 간담회를 마련하였습니다.

## [ 기업안정화 지원방안 ]

- 「기업안정화 지원방안」의 일환으로 우선, 총 40조원 + a 규모의 「기간산업안정기금」을 설치할 계획입니다.
  - 동 기금은 국민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간산업\* 등의 유동성과 자본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.
    - \* 항공, 해운, 조선, 자동차, 일반기계, 전력, 통신 등
  - 자금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고용안정에 노력하고 배당이나 자사주매입에 지원금을 써버리지 않도록 하며, 향후 기업이 정상화될 경우 그 이익을 국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하겠습니다.

- 아울러, 기존의 100조원 + a 프로그램을 보강하여  
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2단계 프로그램을  
10조원 규모로 새롭게 준비하겠습니다.  
중견, 대기업 대상 P-CBO도 5조원을 추가 확대하겠습니다.
- 저신용 등급 회사채와 CP까지 매입하기 위한  
20조원 규모의 프로그램도  
한은의 유동성 지원하에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- 금일 발표된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 
정책금융기관은 정책의 집행기관으로서,  
기업들이 제때에 편리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 
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.

## [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]

-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 
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.
-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지난 주,  
「금융규제 유연화 방안」을 발표하여  
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 여력을 크게 확대하였습니다.
- 금융규제로 인해 자금이 긴요한 위기시에  
금융회사의 실물지원 기능이  
제약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.
- 업계에서 요청한 사항들도 반영하여  
자본규제, 유동성 규제, 영업규제를  
한시적으로 완화한 만큼,  
○ 금융권에서도 시장의 기대에 화답하여  
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 
가용범위 내에서 최대한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- 이번 「금융규제 유연화 방안」을 통해  
약 206조원 내지 394조원의 자금공급여력이 증가하였고,  
정부도 자금지원과 관련한 면책제도를 강화한 만큼  
금융회사의 적극적 자금 공급에 거는 기대가 큼니다.

### [ 고위험상품 투자에 대한 경계감 유지 ]

- 아직 경제 및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데도  
최근 고위험·고수익 금융상품 판매가  
다시 증가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.
-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들었다고  
함부로 야외나 집단활동을 재개하면 안되듯,  
금융시장이 초기의 공포에서는 벗어났다고  
고객들을 고위험 상품으로 인도해서는 안될 것입니다.
- 금융회사는 현 경제상황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  
일반투자자들이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.
- 투자자들은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 
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냉정하게 투자판단을 해 주시고,
  - 금융회사들은 금융상품의 손익구조나 원금손실위험 등을  
충분히 설명하여 불완전 판매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 
신중하게 투자권유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.
- 금융당국은  
시세 조종 등 주식시장의 교란행위를 단속하는 한편,  
향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  
불완전 판매소지가 없는지  
지속적으로 관리·감독해 나가겠습니다.

## [ 당부 말씀 ]

- 우리나라의 코로나19에 대한 전국민적 대처는 세계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고, 그 중심에는 의료진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습니다.
  
- 이제 코로나19의 충격이 실물경제에서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, 우리 기업을 살리고, 일자리를 지켜 국민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
  - 일선에서 기업들에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사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.
  
- 그런 의미에서 금융권 관계자 여러분은 기업의 생명을 지키는, 의료진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.
  
- 금융권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지켜낸다는 의지로 과감한 지원에 나서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.